

## 노조, 51차 정기 대대 모바일 투표로 진행

31일, 사업예산·감사위원 선출 등 핸드폰 투표 ... 사업계획·교섭방침 등 중앙위 후 추후 대대 승인



금속노조가 5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오는 3월 31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치른다. 노조는 정기 대대 소집 공고를 내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노조는 3월 17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1기 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대의원이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안과 온라인 다원 생중계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대의원 모바일 투표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다소 줄고 있지만, 아직 집단감염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51

차 대의원대회 안건은 ▲11기 1년 차 사업예산(안) 승인 건 ▲감사위원 선출 건 등 두 가지다. 노조 대의원들은 3월 31일 14시부터 20시 사이에 위 안건에 대해 모바일을 이용해 투표해야 한다. 모바일투표 장소와 시간할애 등은 지부별로 판단해 결정한다.

노조는 대의원의 사전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현장발의안을 오는 3월 24일까지 사전접수해 모바일 투표에 반영한다.

노조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 안건 회의자료와 노조 감사위원 간 접선거 후보 홍보물을 지부로 배송해 대의원들에게 배포한다. 노조와 선관위는 안건 설명 영상과 감사위원 후보 유세 영상을 노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11기 1년 차 사업계획, 교섭 방침은 4월 중 중앙위원회에서 재소집해 세부 집행 방안을 논의한 뒤 집행하고, 5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승인받기로 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역사상 처음 실행하는 모바일 대의원대회에 대해 “모든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낯선 방식이지만 금속노조의 규약 정신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실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실천은 승리하는 투쟁을 만드는 기반”이라며 대의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모바일 의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담채 회사, 김치는 보존, 하청노동자는 폐기?

대우위니아, 업체 통해 서비스노동자 해고 예고...지회, “원청 직접고용·직접교섭 나와라”



김치냉장고와 2018년 동부대우 전자 인수로 유명한 대우위니아가 수리 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개인사업자로 내몰고 있어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 19로 고통 받는 와중에 사회 약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원청업체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비스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위니아SLS 서비스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전락하면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보호와 고용,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한다며, 금속노조에 가입한 뒤 저항하고 있다.

대우위니아는 2019년 7월 1일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의 판매·배송·서비스를 담당하는 대

우위니아서비스와 대우전자서비스를 통합해 위니아SLS를 만들었다. 대우위니아는 오는 4월 1일부터 별도 운영하던 두 조직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대우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사장들은 이에 발맞춰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을 계속 하려면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원청 대우위니아의 뜻이다. 업체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고 한다.

업체들은 지난 2월 21일 지회와 별인 4차 교섭에서 ▲3월 31일 자 전원 계약 해지 ▲4월 1일부터 지역 재배치 ▲개인사업자 전환을 공식 통보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위니아SLS 지회는 “현재 임금은 최저임금에 건당 수수료 체계다. 원청과 업체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수료만 받으라고 한다”라며 “수수료를 올려준다지만 4대 보험료와 자재, 여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 소득은 곤두박질칠 게 뻔하다”라며 분노했다.

지회는 “위니아SLS는 당기순이익이 39억 원이 넘고 신용도가 높은 회사다”라며 “진짜 사장이 업체라는 가짜사장 밑에 노동자를 가짜사장으로 두고, 4대 보험·임금 등 최소한의 고용책임 조차지지 않으려는 파렴치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개인사업자등록 강요·해고 즉각 중단 ▲원청 위니아SLS 하청 서비스 노동자 직접 고용 ▲원청 직접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3월 13일 연 5차 교섭에서 4차 교섭과 같은 내용을 사측으로부터 확인하고, 3월 16일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한국공작기계 위장 파산, 노동자만 해고

사주 아들 세습 인수 한국머신툴스 설립, 고용 승계 거부 ... “금속노조 활동 방해 중단·고용 승계하라”

한국머신툴스가 파산한 한국공작기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장 파산, 위장 영업양수양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작기계는 2019년 11월 회생인가 폐지 결정이 났다. 같은 달 18일 창원지방법원이 최종 파산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작기계 류 아무개 전 대표이사 등은 676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한국공작기계 류 아무개 전 대표이사의 아들과 한국공작기계 해외영업이사, 생산부장, 국내 영업부장 등이 한국머신툴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한국공작기계 재고자산과 유체동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두)을 13억 2천만 원에 인수했다. 이 인수금액은 한국공작기계가 밝힌 146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한국머신툴스는 한국공작기계의 영문명 상표인 ‘HANKOOK’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이며, A/S 권



리도 받았다.

이환춘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머신툴스는 파산절차를 거친 ‘영업용재산’ 의 양도이므로 고용 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경영진이 거의 동일하고 AS망을 인수하는 등 사실상 영업양도와 다를 바 없어 고용 승계 의무가 있다” 라고 밝혔다.

## 아버지가 위장 폐업, 아들이 꼼수 인수

한국공작기계는 파산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25일 해고를 통보했고,

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분회 조합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3월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공작기계와 한국머신툴스를 규탄하고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지부는 “한국공작기계는 회생계획안 시행 시기에 매각 노력을 하지 않고, 시장가보다 높은 매각대금을 책정해 인수 의향을 보인 회사의 인수를 무산시켰다”라며 “파산의 수혜는 파산의 당사자가 보고 피해는 노동자가 짚어졌다” 라고 규탄했다.

김수연 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장(한국공작기계 해고자)은 “따뜻한 봄이 아니라 잔인한 봄”이라며 “한국머신툴스는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고 출근하는 노동자가 늘었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라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 “국민연금, 위법·살인기업 포스코 개혁 최대 주주권 행사하라”

포스코, 이명박 자원외교 수습 조 날려 ... 노조, “위법경영 추궁·사회 책임 이행 감시·독려해야”

금속노조가 국민연금공단에 포스코가 경영 정상화와 사회 책임을 다하도록 대주주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지분을 11.76%로 최대 주주다.

금속노조와 공적 연금강화 공동행동은 3월 18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포스코 대주주 국민연금의 수탁

자 책임 강화와 적극적 주주 활동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노조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공적 연금강화 공동행동은 오는 3월 27일 포스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관심 없는 이사 선임 반대 ▲현 경영진에 각종 위법행위와 부실 경

영에 대한 책임 추궁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 감시와 독려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공동행동은 “국민에게 대규모 기금을 수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물의를 일으키고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문제기업 포스코를 개혁하기 위해 대주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